

광주일보

Weekend

제1799호 2판
2008년 3월 1일 토요일



아줌마 만세!

드라마·영화서 주인공 맹활약
솔직·당당함으로 분위기 살려

어디든 자리가 보이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기필코 앓고마는 아줌마. 투박한 말투와 거칠없는 표현으로 사람 속을 끌어 하는가 하면 벗속에서 끌어낸듯 짜릿짜릿한 웃음소리로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아줌마.

아줌마 하면 대부분 억척스러움, 뻔뻔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편견에도 지금 방송기사에선 산전수전 다 겪어 본 아줌마들이 종횡무진 맹활약 중이다.

‘천하일색 박정금’(MBC)은 수다스럽고 때로는 뻔뻔하기까지 한 아줌마 혐의의 애환과 활약상을 담았다.

38세 아줌마 형사 박정금(배종옥 분)은 특유의 너살로 고단한 인생을 당차게 살아간다. 또 형사답게 화끈한 액션으로 강력법을 잡기도 하며 잘생기고 능력있는 연하남인 변호사 한경수(김종민 분)와 로맨스도 그려가고 있다.

또 오는 8일 첫 방송될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MBC)에는 최진실이 39살의 억척스러운 아줌마 한선희로 출연, 극중 텁啼스타로 나오는 정준호와 스캔들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조강지저 클럽’(SBS)에 등장하는 아줌마들은 남편의 외도에 더는 당하고 살지 않는다. 최근 극중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힘들게 살았던 37살의 주부 나화신(오현경 분)이 짚고 능력있는 직장 상사 구세주(이상우 분)의 도움으로 초라한 주부가 아닌 화려한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드라마에서 아줌마들은 보잘 것 없지만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다.

드라마 속에서는 잘생긴 외모와 재력을 갖춘 매력남들로부터 프러포즈까지 받는다. 더 늙기 전에 좋은 여자로서가 아닌 사랑스러운 여자로, 남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로망을 대변, 여성시



〈천하일색 박정금〉의 배종옥

청자들에게 대리만족감을 주며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아줌마를 소재로 한 오락프로그램도 인기다. 최근 들어 2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해피투게더3’(KBS)는 사우나에서 벌어지는 아줌마들의 수다를 소재로 한 ‘웃지마! 수다방’ 코너가 시청률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고정출연하고 있는 개그우먼 박미선은 옆집 아줌마처럼 남편 힘담과 자랑을 섞어 솔직하게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에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연초에는 아줌마 핸드볼 선수의 실화를 그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침체한 한국 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더니 오는 4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걸스카우트’가 그 바トン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 ‘걸스카우트’에서 김선아, 나문희, 이경실, 김은주 등의 여배우들이 생활 내공으로 무장한 아줌마들로 등장, 이색적인 코믹범죄드라마를 선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관계자는 “아줌마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통쾌한 모습에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며 “뉴미디어 출현 이후 올드 미디어가 된 TV의 시청자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아줌마들이 좋아할 소재나 아줌마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은미자 emlee@kwangju.co.kr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9005)

편집부 2200-629 광고마케팅국

정치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시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방송사 취향보다 시청자에 웃음 주는 것 더 중요”

MBC ‘개그야’로 무대 옮긴 정종철

“나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곳에서 벽돌을 쌓아가며 새롭게 예쁜 집을 만들고 싶다. 방송사를 때리는 것보다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간판 개그맨으로 활약하다가 박준형과 함께 MBC TV ‘개그야’로 무대를 옮긴 정종철이 최근 첫 녹화후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정종철은 “후배들과 함께 호흡하며 배운다는 자세로 ‘개그야’ 무대에 설 것”이라면서 “(동료들과) 살을 부딪치며 열심

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새롭게 구성한 음악 개그 코너 ‘나카렐라’를 선보였다. ‘개그콘서트’에서 함께 활동한 조수원, 쟈경선, 조준우를 비롯해 ‘개그야’의 기존 멤버 추대업과 함께 코너에 출연했다.

정종철은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그동안 ‘갈갈이 3형제’ ‘생활 사투리’ ‘골목대장 마빡이’ 등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에서 박준형 등과 함께 활약했다.

“내가 선배니까 내 개그를 따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MBC에 왔다는 이유로 내가 MBC 스타일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섞어 가면서 기준과 다른 새로운 개

그 스타일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정종철은 “KBS 동료 개그맨들이 처음에는 ‘괜찮겠느냐’ ‘모험이다’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지금은 ‘선배님이 잘해야 한다’는 등 시기하는 태도 없이 격려해준다고 말했다.

“2006년 ‘KBS 연예 대상’에서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을 받고 ‘생활 코미디만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미디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개 코미디 무대에 서지 않은 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좋은 음식만 먹으려 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싶었다.” /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
크리미나리

3 BOX OFFICE

영화

(단위: 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추격자	68만 4천499	175만 8천687
2	점퍼	33만 6천628	130만 4천559
3	데스노트 L: 새로운 시작	16만 2천197	21만 756
4	스파이더워크기의 비밀	14만 6천207	42만 6천470
5	어둠먼트	8만 4천778	10만 4천879
6	원스 어폰 어 티임	5만 2천721	152만 9천693
7	6년째 연애중	3만 7천599	109만 8천601
8	주노	3만 2천720	4만 2천173
9	3:10 투 유마	2만 7천912	3만 3천336
10	오페나지:비밀의 계단	2만 7천277	15만 6천827

〈자료제공: 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

순위	제 목	방송·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40.5
2	이산	MBC 33.6
3	MBC 뉴스특보(장관 후보자 발표)	MBC 27.4
4	뉴히트	MBC 27.2
5	무한도전	MBC 24.5
6	특집 SBS 스포츠<동아시아축구대회>	SBS 23.7
7	특집 KBS2 스포츠<동아시아축구대회>	KBS2 23.6
8	조강지저 클럽	SBS 23.4
9	엄마가 뿐났다	KBS2 21.5
10	이현동 마님	MBC 21.4

〈자료제공: TNS 리서치〉

비디오

(단위: %)

순위	제 목	장르
1	식객	드라마
2	색, 계	드라마
3	브레이브 원	스릴러
4	비르게 실자	코미디
5	싸움	드라마
6	디 워	액션
7	디아하드 4.0	액션
8	세븐데이즈	스릴러
9	킹덤	공포
10	본얼티메이트	액션

〈자료제공: 비디오코리아〉

가요

(단위: 개수)

순위	제 목	가 수
1	Love	브라운아이드걸스
2	보고싶은 날엔	박지현
3	Kissing You	소녀시대
4	남자 때문에	주
5	미워도 사랑하니까	디비치
6	미지막 인사	빅뱅
7	How Gee	빅뱅
8	만약에	소녀시대-태연
9	그것 사랑	멘데카즈&VOS&일렉
10	클래식	KCM

〈자료제공: 멜론〉

412번 TV 이동 TV 광주 42번 광주, 나주 43번 광주, 세남권 55번, 대전 42번

CBS

광주 CBS TV

일·휴일 시트콤은
광주와 함께 광주와 함께
광주와 함께
광주와 함께

TV 강단 광주 1위

TV 강단 광주 1위

TV 강단 광주 1위

TV 강단 광주 1위

<b